

데스크 시국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그 무엇보다 정치와 민생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우선 4월에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4·7 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대선 주자들은 대선 도전 티켓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9월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초로 전남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선 티켓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1월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도전에 나설 것인지? 야권 통합 및 단일화는 가능할 것인지? 이 또한 관련 포인트가 될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생

정치 시간에는 민생이 맞물려 간다.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폭풍으로 민생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는 정치 전반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은펜칼럼



한국환
강은규회장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됐지만 결국 종식되지 못하고 올해도 확산되고 있으니 큰 격정이다. 국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사망자는 185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니 참으로 글로벌한 재앙이다. 지금 우리 인류는 역사상 전혀 가보지 못한 초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국내의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으로 소위 '추-윤 격전'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일하다 죽지 않게'였다. 그동안 우리는 방역에서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경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어 G7 국가를 초월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음양(陰陽)이 있는 것으로, 'K-방역'으로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것과는 달리 산업 현장 노동자의 많은 희생은 큰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산업재해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은 결국 돈(비용)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용자 최대의 수익을 위해 노동자의 신체 위험과 생명을 소홀히 하여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

기 고



이순형
광주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장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1일 3대 광주형 뉴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최초로 '2045년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더 나아가 '2045년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전환 2045년 탄소중립 도시 광주'라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광주형 인공 지능(AI)-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발표했다. △AI 기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Net-zero)의 '그린 뉴딜' △상생·안전의 '휴먼 뉴딜' 등 3대 광주형 뉴딜 정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매우 담대한 선언을 한 것이다.

'광주형 AI-그린 뉴딜'의 핵심은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시가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1단계로 2030년 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량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0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을 달성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광주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35 광주

신축년, 호남 정치의 과제

잡았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여론의 정권 재창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반대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민생 경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야권의 정권 탈환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격언을 되새겨 할 때다.

올해 광주-전남 정치권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 만큼 우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미래를 위한 도전과 결집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거대 여당의 '모범생'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다. 시대에 대한 성장과 반성 그리고 과감한 도전보다는 지도부의 논리에 순응하고 주어진 역할에만 충신했다는 것이다.

물론 마냥 비난받을 일만은 아니다. 전체 18명의 의원들 가운데 17명이 초·재선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어느덧 변방으로 밀린 호남 정치의 현실이 집권자는 지적을 대하고 보면 서글퍼지는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호남 정치가 '꿈도, 힘도, 길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 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 정치가 '시대의 선봉'에 서지 못하고 '시대의 비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감한 정치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장 3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선출과 5월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에서 호남 정치권의 영향력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새해가 되길 희망하며

물이다.

지난해 10월, 과로사로 사망한 40대 택배 기사의 사연이다. 그는 배송 중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평소 건강했고 택배 기사로서 20년 경력을 쌓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웠다. 그의 일상은 6시에 기상해 밥을 허겁지겁 먹고 6시 30분에 출근하여 밤 8~9시쯤 퇴근하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9시가 훨씬 넘어 퇴근해 씻고 자는 시각은 자정이 다 되었다. 그는 폐지 줍는 아버지, 장애가 있는 동생의 생계를 챙기고 있었다. 하루에 적게는 300개 많게는 400개를 배송했으며 밥 먹음 틈조차 없어 김밥을 먹으며 운전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주의 요구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로써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0년 이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의 장례식 때, 회사는 아무런 물질적 비용 지원 없이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주고 갔다고 한다. 그의 부친은 "택배 기사 죽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이 되게 해 달라"고 울부짖었다. 또 어떤 택배 기사는 퇴근하면 새벽 5시가 되어 밥 먹고 쉬고 한숨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나와서 두 물건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 여건 속에 지난해 12월 말까지 20명에 가까운 택배 기사들이 숨졌다.

그들은 이처럼 인간다운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대부분 사망자 유서엔 "너 너무 힘들었어요"라

2021년 '광주형 AI-그린 뉴딜' 원년으로

RE100'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어 3단계로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도시 광주' 라는 목표를 실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은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해였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난해를 50일이 넘는 장마와 폭우 속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하게 느꼈다. 이에 광주시의회에서는 그린 뉴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했고, 그 결과 82%가 넘는 시민들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광주시민의 행동과 광주시 행정의 노력이 '광주형 AI-그린 뉴딜' 종합계획으로 탄생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45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곧바로 환경부 장관의 감사 서한에 이어, 기관에게는 가장 영예로운 에너지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으로 이어졌다.

광주는 종합계획 발표 후에 더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형 AI-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분야별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아가 행정과 의회·산업계·시민사회 연구자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형태로 '2045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고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써줄날줄로 엮어 매우 촘촘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

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의원들은 소통과 신뢰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운동권과 관료 등 출신의 간극을 소통으로 메우고, 신뢰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과거 지역의 의원들의 상호 불신과 반목이 호남 정치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호남 의석은 전 북까지 합쳐도 28석에 불과하다. 결집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호남의 현실을 바로잡고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차기 대선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호남 민심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진보 정권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호남 민심과 함께 차기 대선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4기 진보 정권을 출범시키고 국정 과제에 호남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 호남의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년 대선 직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호남의 미래를 위해 '될 성부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풍토도 미리 조성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이 반복될 수 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라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는 말을 남겼다.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와 민생의 시간인 신축년은 호남 정치에 있어 '좋은 위기'가 될 수 있다. 호남 정치권이 치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갔으면 한다.

는 말이 많았다. 대부분 심혈관 질환으로 숨져 과로사로 추정된다. 연간 2000명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 사망자는 영국과 독일의 5배, 일본의 3.5배로 심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이 같은 희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더 중시하여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소홀하며, 두 명 이상이 해야 할 업무를 한 사람에게 강요하는 등 대부분 인재(人災)의 성격이다. 그런데 노동자가 많이 죽어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없다. 이는 정부의 엄격한 현장 확인·감독에 대한 책임도 아주 크다. 정부와 택배 회사들이 분류·배송 인력 투입 약속을 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대일 사후 50년이 지나도록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현대의 사회적 컨센서스다. 이제는 일하는 현장이 전성터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보람된 삶의 장이 돼야 한다. '동물 복지'까지 주장하는 시대에 인간의 생명을 가버어 여기는 나라가 어찌 선진국 대열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경제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 가는 일이 더 이상은 절대 안 되고, 우리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권에 이른 지금, 성장을 넘어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제'를 고민해야 한다. 새해에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처절한 목소리가 사라지는 원년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구성된 그린에너지 기술분과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열, 지열, 풍력,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광주시 곳곳의 건물과 도로, 유희주 등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 기술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과 최근 지정된 '광주 그린에너지 ESS(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통한 전력 거래와 P2P 실증 등이 단순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광주시민들의 삶을 위해 적용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 모든 일들은 광주시 행정과 테크노파크 및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등의 공공기관, 나아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과 기관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봉착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라는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광주형 AI-그린 뉴딜 원년인 2021년에는 남다른 각오가 있다. 말로만 하는 2045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이 아니다. 광주형 AI-그린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시 행정과 시민회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그린에너지 기술분과위원회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기술적인 문제들을 뒷받침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의 심부름꾼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社說

광양제철 증대 재해 빈발 그만한 이유 있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4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를 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3년간 산재 사고로 여덟 명이나 숨지는 등 증대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근로 감독 결과 14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9년 6월 여수지청의 기획 감독에서 455건의 위반 사항이 나온 이후 지난해 7월 추락 사망 사고 직후 실시된 점검에서는 200건이, 그해 11월 폭발 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 광주노동청이 실시한 특별 감독에서는 77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문제는 근로 감독이 실시될 때마다 비슷한 위반 사항이 수백 건씩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이나 안전작업 계획서 미작성, 특별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그것인데 광양제철소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폭발 사고 이후 포스코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1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8년 증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된 내용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증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점검과 시정 명령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산업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업의 부실한 안전 대책과 산재 사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증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보다 절실했다.

새벽이 되면 젊은이들 유흥가로 달려간다니

'코로나 불감증'인가. 아니면 '코로나 피로감' 때문인가. 젊은이들이 술집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새벽 시간에, 식당과 주점이 밤 9시면 문을 닫게 되자 생긴 기이한 풍속이다.

광주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장소는 동구 구시청사거리와 서구 상무지구다. 며칠 전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 두 곳을 둘러봤다. 새벽 5시 구시청 일대. 평소 같으면 문을 닫아야 할 시각인데도, 이 일대 많은 주점이 불을 환하게 켜고 손님을 맞았다. 비슷한 시각 서구 상무지구. 어둠이 채 가시기 전이지만 주점

간판 불이 잇따라 켜지면서 기다렸다는 듯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줄지어 주점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잠든 새벽 시간의 도심 유흥가가 젊은층의 '코로나 통금 해방 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젊은이들은 PC방 등에서 머무르다 어두워진 새벽에 문을 여는 주점을 찾는다. 술을 마시기에는 환한 대낮보

다는 어두운 새벽 시간의 분위기가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시각 주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문을 여는 '올빼미 주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순천시에 사는 이미 '낮술 금지'(새벽 5시-오후 4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새벽 시간이라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버섯이 5명 이상이 입장해 술잔을 비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장사가 안 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식당이나 주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오갈 데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피로감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의 시간이 온다.

無等鼓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 자정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연말에 시작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해를 넘기며 1개월 간 이어지는 셈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속에 연말 송년회와 새해 신년회도 사라졌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친척 등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고 이 어긋기 따위함을 나누는 세밑 풍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뜨거운 일출을 보며 한 해의 설계와 다짐을 해 보는 신년해맞이 행사도 모두 사라졌다.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을 뿐이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불평을 해 왔던 사람들도 '왜 그런 불평을 했었는지 이제 와서 보니 후회'가 된다'고 말할 정도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루아침에 잃고 보니 평범했던 일상들마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마스크

없이도 언제라도 불꽃 떠날 수 있었던 여행,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루의 일상을 마감하며 진하게 기울었던 소주 한잔.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여 즐겼던 취미 생활. 이러한 일상을 코로나19가 송두리째 삼켜 버리면서 그 일상이 너무나 그림고 소중한 추억이 되어 버린 셈이다.

방역 수위를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지 못할 채 살아가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모를 무력감이

일상의 추억

빠져들기도 한다. 새해를 맞아 새롭게 세우는 계획도 과연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들려오는 희소식이 있어 마냥 애타운 것만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 치료제도 개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그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깨끗한 공기를 마윳듯 들이마실 수 있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올해는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아, 생각만 해도 습통이 트이는 듯하다. /최원철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